

특집
제4부

이대로 좋은가

이 흥 재
(본지 편집부장)

양계가는 울고 있다.

양계가는 경영비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질이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지고 있어 커다란 진통을 겪는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다 특히 39℃까지 올라가는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도 단백질과 약품의 요구량이 높아지는 법인데도 종전보다 약 20%나 떨어진 사료질은 한계점에 다다라 산란율의 저하, 증체율의 하락 반면에 사료섭취량은 늘고, 질병의 만연으로 폐사율이 높다. 최근 더위에 열사까지 일어나는 실정이다.

산란율이 10% 하락한 것을 회복하려면 약 3개월간의 시일이 걸리며, 닭의 수명도 짧아지고 도태기간도 빨라지며 심지어는 환우계까지 무더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판되는 사료의 대부분이 고기인 항생제나 영양제가 첨가되지 않고 있어 영양실조에 걸리고 항병력까지 약해지고 있어 복합전염병이 만성화하고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계가는 전보다 2배이상의 약품을 사용, 약으로나마 닭의 능력을 유지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약의 남용”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해 줄 목적으로 어분, 번데기 등을 사료공장에서 비

싼 가격에 구입하여 먹이고 있는데, 파다 배합이 되어 부작용이 크며, 그나마 단백질난에 허덕이는 업계에 낭비를 초래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계가는 비현실적인 사료가격은 질적인 불균형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료공장 가격인상에 찬성하며 비싼 값이지만 전체 생산비는 오히려 적게 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료를 공급하기를 요망한다 그렇다고 사료가격 인상만큼, 산물가격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축가에게는 가격인상의 부담율이 큰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정부나 사료공장은 양축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후 사료질보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 한 사료난은 해결이 안될 것이다 또한 지금 가격이 인상된다 해도 품질은 파동이전보다 못 할 것으로 양축가들은 보고 있다.

양축가는 사료공장이 10원을 투자하면 11원을 받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양축가 자신이며 일부 몇몇 양체대군 업자끼리 모인 계우회는 자체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사료공장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4년마다 주기적인 괴로움

배합사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

특집 제 4 부/01대로 좋은가

한 것은 67년, 꼭 10년이 된다. 그동안 69년에 한번, 73년에 한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부원료가격상승, 원료의 품귀, 외국 흉작 등등의 원인으로 사료질이 나빠졌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었다. 그 이외에도 여러번 가격이 인상조정되었었다.

정부가 있고 또한 사료수급조절 단체가 있는데도 왜 양축가가 사료수급 조절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왜 사료가격 인상시에는 꼭 양축가가 피해를 입도록 만드는가?

사료가격은 4년전보다 288%나 인상된 반면 계란은 겨우 110% 정도밖에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축산물가격 수준도 몇년전과 같고 원료도입가격도 거의 변동없고 관급사료(60% 옥수수, 30%의 강피류) 가격도 변동없는 현실에서 겨우 20% 차지하는 단백질 원료가 부족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몇 천만의 축산업자가 곤욕을 치뤄서야 되겠는가?

장기적인 전망에서 안정된 원료수급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또한 부족한 원료에

대해서 사전 연구개발 되었다면, 왜 양축가가 울고, 4년마다 파동을 치뤄야 하겠는가?

여하튼 양계가는 저질의 사료로 인한 시련을 계속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의 인상을 원하고 있다

급증되는 가축수와 사료량

배합사료 생산량이 64년에 비하면 10여 년사이에 740%나 늘고 있으며, 3년전보다 150%나 늘어나고 있다.

그중 60%를 점하고 있는 것이 양계용 사료이다.

한국과학기술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81년대에는 400만톤의 사료자원이 필요하며 이중 50만톤은 국내생산이 가능하며 나머지 350만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놀랍도록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는 모두 자원절약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 것이다.

77년도 농수산부 배합사료 잠정 추계에 의하면 2차예측 1,820천톤에서 더 상회하는 3차예측 2,000천톤이상으로 추정하고

平飼養鷄의 必需品

自動모이통
自動 물 통
을 권합니다.

특징

- 병아리로부터 성체에 이르기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주행에 맞추어 맞는 데를 잘아 끼움으로 사료를 해쳐 내지 못한다
- 통사세의 회전이 가능하여 먹는대로 내려온다
- 구멍이 뚫려 통풍이 잘되므로 부폐를 방지할 수 있다
- 푸라스틱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는 구
- 가격이 저렴하다



초생추~성계용 모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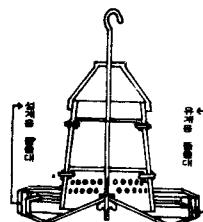
의장특허 제9688호

실용신안특허 제8585호

간석동



사료통의 단면도



동 신 사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326 Tel. (인천) 8-0235 (주)원한국벽돌업

제품취급소 : 서울 종로구 효자동 27 5호 29 2013 30 9461 대체구좌 서울 51552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2-10 동남축산 64-4018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내역을 보면 꼭류 1,020,000 M/T, 대두박 84,000 M/T 기타 박류 60,000M/T 동물성단백 43,000M/T, 기타 7,700M/T으로 책정하고 있다.

단백질 원료 수입에 정을 일자별로 보면 7월 22일 어분을 2,100톤, 육골분을 7월 15일 2,000톤, 8월 15,000톤, 채종박을 7월 15일경 8,000톤, 8월경 2,000톤, 낙화생박은 6월 15일 1,700톤, 7월 4,500톤 8월 2,000톤 T.C.P를 7월경 600톤 가량 드려오고 대두박 109,800톤을 오는 9월 까지 수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으나 문제는 수입을 위한 외화부족과 수입국의 가격이 비싸다는데 있다.

단백질 사료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품목은 10여종이다. 그러나 문제는 배합원료의 20~30%를 점유하고 있는 단백질사료의 주종인 어분과 대두박의 품귀와 국제가격양동에 있다.

보통 박류는 카나다, 인도등지와 어분은 칠레, 캐루, 남미등지에서 수입하는데 전보다 무려 150%나 가격이 양동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단백질 기근시대로서 가격의 고하간에 그 수급불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내산 단백질 사료공급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인 경우는 대두박, 채종박, 임자박, 호마박 등 박류도 경지면적 감소와 수자타산이 맞지않는 이유로 재배를 기피,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도 미국, 소련 등 20여개국의 경제수역 200해리 설정으로 그간 원양어선들에 의한 어분이 품귀가 되어, 2가지 모두다 외국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다

국내산 어분의 형편을 보면 못 먹던 잡어들도 전조해서 식용으로 나가며, 그나마 일본인이 와서 국내가격보다 비싸게 매입, 가공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어분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받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까지는 어획기이므로 정어리의 증산이 약간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근본적으로 절대량이 모자라는 것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자들의 이야기이다. 어분은 또한 가공처리 과정의 미비로 안정공급을 기하기 어렵다.

보통 전조시에는 기름을 분리하여 따로 깨끗이 전조해야 하는데, 기름분리는 거의 없고, 부폐하거나, 모래가 섞인것, 염분함량이 높은것, 전조분량 등의 저질 어분이 판을 치고 일부 악덕업자는 패분, 요소, 우모분, 모발분, 제각분, 피혁분, 혈분 등을 첨가하여 단백량만 높여 DCP 함유량 검사 체크 안됨) 아미노산의 불균형은 물론 단백질의 소화흡수율이 불량한 제품을 판매하는 실정이다. 사료공장은 적자는 안보는 한도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생산함으로 먼저 비싼 원료쪽부터 원가를 줄이다보니 짠게 비지떡이라고 사료질은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불량제품은 또한 수송이나 저장중 변패가 쉬운 것으로 살모넬라균의 온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어분은 생산량이 적은 테에다 품질까지 조악해지고 있으니 양계가의 입장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아직도 영양소의 함량이나 소화이 용율과 사료적가치 등을 정확히 평가할 만한 연구자료까지 부족한 실정이고보니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만되고 얼

특집 제 4 부/이대로 좋은가

처리와 전조기술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되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식물성 단백질인 박류도 보편적으로 대두박, 임자박, 채종박 호마박 등인데 이것 역시 공급량이 절대부족이고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며 가공과정의 결함으로 그나마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도입가격이 심한 기복이 있다는데에도 문제가 있으며, 요즘 같이 박류사정이 나쁠때는 더욱 품질이 조악해 질수 밖에 없다.

박류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두박의 경우,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량은 겨우 5.3%이지만 대두박은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이번에 대두박이 므자랐던 원인은 수입지연 및 국내생산의 저조였다. 국내 동방유·량의 년간 대두박생산량은 18만톤인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두박의 공급 가격이 국제시세에 상당히 미달하는 가격 이라는 데 의혹을 앓고 있는 것이며, 그나마 콩기름이 30억원어치나 체화되어 있어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7월부터 9월까지 여러가지 박류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하반기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77년 대두 공급현황을 보면,

1월 6,100톤, 2월 6,200톤, 3월 8,700톤, 4월 7,200톤, 5월 8,800톤, 6월 6,000톤, 7월 6,000톤, 8월 6,000톤, 9월 6,000톤 정도이다.

사료가격은 인상되어야 한다.

사료·질의 저하는 원료가격 상승에 반해 사료 가격인상억제 때문에 생기고 있다.

양축가에게도 효율사료가 훨씬 생산비가 적게 들며 상품도 충실하다. 물론 약간의 원가상승압박을 받지만 인상하는 쪽이 양축가에게는 이익이 크다. 또한 국가

적인 차원에서도 큰 이익을 준다.

첫째,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하는 사료가 낭비되지 않으며,

둘째, 양축가의 생산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손실이 작아지며,

셋째,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찬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문제는 사료가격 현실화로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데에 양축가는 항상 불안하고, 매번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 손해는 국가적인 면에서 막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당국, 사료업계, 양축업자가 다시한번 자숙하고 백년지대계의 축산을 위하여 과감한 추진력을 수반한 면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가 당국의 외고점으로 계속 한 산업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것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수와 부정확한 통계만으로도 어찌 1차산업인 축산업의 실태와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어느 쪽이 국가를 위하는 걸이며,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이 깊은가? …, 이 문제는, 농수산부에서 75년 12월에 15%를 올려 받은 현행가격은 그동안 옥수수 수입가격과 소맥피가격을 제외하고 다른 부원료값이 오른데다 공공요금의 인상, 임금 인상등으로 제조원가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사료가격이 현실화 않되면 질의 저하는 물론 생산마저 기피할 우려가 있어 사료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기 쉬우므로 (현재 P사료 경우는 육체사료 제조를 중단하고 있음) 이런 불가피한 원인을 고려하여 품목별 가격을 현실화 하기도 했으나 사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가격인상은 경제기획원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기획원측은 사료가격 인상은 도매물가지수 앙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현실화 시키는데 반대하고 있어 사료공장이나 농수산부 담당부서는 축산업자와 물가당국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업계에서는 8월중 순경 곤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① 배합사료 가격자유화와 동시에 품질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질이 보장된다면 사료가격의 상한선을 해제하여 가격을 현실화 내지 품질과 값으로 상품경쟁이 되도록 자율 경쟁시키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

팔리는 사료를 생산케 하고, 기업적 수단을 발휘하도록 하며, 경쟁으로서 더이상 수익성보다는 많은 판매로 수량식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영개선과 기업화가 되도록 유도하고 적정이윤을 붙여 최대수요를 창조하도록 하며, 양죽가는 양질의 사료를 염가로 보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료효율이 높아지면 강피류의 부족현상도 약간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② 공정규격의 개선

농수산부고시 제2684호로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를 성분량 한도내에서 성분등록하여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양계용사료는 11종이 있다.

성분량은 조단백질, 최대량으로 조섬유와 조회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미사료를 18종으로 규제하여 최소량으로 조단백질, 최대량으로 수분, 조섬유, 조회분, 조지방, 염분, 모래, 칼슘인, 불소제등도 규제하고 있으며, 항생제

는 50p.p.m 이하 비소제는 25p.p.m 이하첨가하도록 하여 성분 보증서에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오래되고 강압적인 공정규격 및 가격규제는 현재 배합사료 부피와 량만을 증가시키고 있고 비싼 원료의 낭비와 불순물을 첨가하는 부조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규격이 절실히 요구되며, 검사제도로 강화되어야겠다. 또한 계절적으로 사료효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부족사료의 과감한 도입과 수입국과 수입원료의 다변화와 관세, 물품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물의 소비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국내산 원료는 점점 줄어들고 반면 도입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다.

정확한 수급통계와 계획이 없는한 사료난은 계속 급심할 것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첫째, 주재원이 수출국에 상주할 필요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텔레스를 받아 농수산부 허락이 나야 수입되나 국제곡류세 및 동향, 작황과 변동, 다른 수입국의 수요를 예측하고 적기에 구매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시키므로서 얻는 이익은 주재 비용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한 수송지연 등으로 국내공급계획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주재원 몇 명만을 양주시키면,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도입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41종을 수입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는 겨우 10여종에 불과하다. 품목을 다종화하면 품목별로 영양과 경제성을 분석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다

셋째, 현지 주재원의 밝은 국제 동향에

특집 제 4 부/이대로 좋은가

관한 지식을 활용 수입국도 다양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질좋고 싼것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재원을 통하여, 즉 구매창고를 일원화 하면 수송비등, 제경비 등이 최대한 줄어든다.

넷째, 축산업은 1차산업으로서 아직도 영세하다고 볼 수 있고 위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료원료 수입품에는 물품세와 관세의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

④ 사료업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메이커는 적어도 생산품의 효율을 확인한 다음 믿을 만한 사료를 양축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즉, 시험농장에서 사양 시험후 그 품질을 믿을만 할 때 판매토록 한다 또한 양축가를 위한 지도사업을 통하여 그 능력을 확인한다면, 사료효율 개선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한, 각 사료공장은 시설을 더욱 현대화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으로 분석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합제획과 공정은 전산화를 통한 최저배합사료가격을 계산하여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사료공장설 설계방침을 완화하여 양축가의 분포상태에 따라 적절히 신설공장을 허가해주고 또한 생산능력 및 규모도 확대하므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단미사료업계의 무질서와 악덕업자들의 횡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수급조절기관이 창구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원료를 공동구매하여 회원공장에 배정토록 해야된다

⑤ 새로운 사료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국내자원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다면 최대한 자원을 이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계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⑥ 긴급한 것은 안정기금 활용, 75년 7월부터 농협은 사료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설치운영하여 현재 약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도입사료중(옥수수, 수수) 도입가격과 공급가격과의 차액과 기금 운영수익금, 정부보조금, 융자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목적은 배합사료 가격의 장기적 안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에 쓰기로 되어 있다. 즉 사료도입자금으로서 도입가격이 비싼 경우 가격차액을 보상하여 수입품가격 안정을 꾀하고 사료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과 축산물가격 안정사업, 기타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용도에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입사료의 약 70%를 소비하는 양계분야에서는 이 기금의 혜택은 현재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번의 가격인상과 더불어 양계사료에도 기금을 붙여 양계사료안정 및 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양계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한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당국에서도 사료수급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족사료의 과감한 도입, 정부 관리양곡 부산물과 민수도입소매가공 부산물의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옥수수와 수수 등의 관세면제품목에 대하여 면세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예치할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여하간 이번 사료난을 계기로 과감한 대책이 없는한 축산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